“공무원 초과근무 줄여 새 일자리 만들자”

상반기 초과 수당 전남도 56억·광주시 36억 지급

시·군·구 포함땐 연 1000억… 근무 형태 개선해야

연봉 기준 4000만원 수준의 적정 임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광주형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잔업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초과근무를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다.

광주시와 전남도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연간 200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이들 공무원 수의 5배에 달하는 시·군·구 공무원까지 합하면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10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35억7700만원에 달했다. 매월 평균 1130명이 모두 5억9300만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상반기에 55억9600만원을 지급했다. 월평균 9억3200만원으로, 매월 평균 2045명이 3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초과근무수당이 5급 기준 시간당 1만2984원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40만원 가량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광주시 총액은 임기직, 무기계약직을 뺀 일반직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며 전남도 총액에는 임기직, 사업소 지급액까지 포함됐다.

즉 시·도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들만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서 빠진 시·군·구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합하면 총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적절히 조절하면 수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새로운 일자리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 공무원들은 일벌레가 아닌 일·가정 양립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며 “과거처럼 수당을 타내기 위한 초과근무는 많이 사라졌고 직원들도 불필요한 초과근무보다는 업무시간 능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다르다.

전남도 공직자 A씨는 최근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정과 개선을 촉구했다. A씨는 “근무시간을 어학 공부, 인터넷 서핑, 지나친 사적 통화, 재테크 등으로 보내고 유독 저녁에만 일이 있다고 초과근무를 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주위에서 보면 바쁜 일도 없는 직원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신문 보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개인별 초과근무 시간대와 월별 초과근무량 공개도 제안했다. A씨는 “(분석 후) 정말 바쁜 직원이라면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일이 별로 없는데도 초과근무 실적이 비상식적으로 많다면 부서장이 자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 밑에는 “언제까지 초과근무가 논란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생기면 상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등 공감하는 댓글도 달렸다. 연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싶다는 의견도 달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평균 2시간씩 초과근무를 줄인다면 월 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부서별로 초과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원들 왜 이러나

비위 연루 2명 재판·1명 수사

2명은 의원직 상실·자진사퇴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잇단 비위 의혹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의장을 비롯해 2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1명은 선관위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명은 이미 의원직을 잃었거나 자진 사퇴했다. 동료 의원들은 비위에 연루된 의원들을 감싸려고 탄원을 추진,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4일 선관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도의회 A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의원은 낙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의장은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감정가 4800만원의 집터를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2000만원에 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의장은 첫 공판이 열린 지난 4월4일부터 매월 한두 차례 회기와 무관하게 공판에 출석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검찰이 의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김효남 전 의원은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가량을 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재판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동료 의원들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랐다. 양영복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자신이 속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 전 의원은 선거법상 직위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지난달 말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탄원서 제출을 추진해 잡음이 나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흥빈 의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상반기 전남 수산물 수출액 사상 첫 1억달러 돌파

1억300만달러… 김 절반 차지

올해 상반기 전남 수산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전남 수산물 수출액이 1억3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8900만 달러)보다 15.1% 증가한 역대 최고 실적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농수산업계의 반도체’라는 별칭에 걸맞은 상승세라고 전남도는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김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51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4200만 달러)보다 19.6% 늘었다. 특히 중국의 김 작황 부진에 따라 전남 김의 수출은 전년보다 174% 늘어난 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전복 1800만달러, 미역 1200만달러, 톳 800만달러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일자리 창출 담양군 최우수상

6년 연속 수상 영예

담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 회관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행사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일자리 창출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담양군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첫해인 2011년 이래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담양군은 민선 6기 ‘풀뿌리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개소, 풀뿌리 기업 51곳 발굴 및 육성에 힘써왔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인턴 사업과 직업훈련 교육을 추진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창업 보육센터에 창업가 48명을 입주시켜 경영지원 역량강화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청년 고용률을 지난해 비 3.5%p 끌어 올렸다.

또한, 담양일반산업단지 내 우수 기업유치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무료 출퇴근 통근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담양군 종합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조문 행렬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생전 전 재산 기부

지난 23일 별세 오늘 발인 … 유해 나눔의 집 안치

24일 오후 23일 향년 91세 나이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생전에 사실상 전 재산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김 할머니는 재단의 1호 기금 출연자였다”면서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기부하신 분”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아름다운재단이 창립한 직후인 2000년 8월 평생 모은 돈 5000만원을 기부해 ‘김군자할머니기금’이 조성되도록 했다. 김 할머니는 13살에 부모를 여의어 8개월간 야학에 다닌 것이 배움의 전부였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할머니는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시설에서 자란 대학생들 학비를 지원해달라”며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다.

할머니의 기부 소식이 전해진 후로 17년 동안 많은 시민이 기금에 돈을 보탰다. 김 할머니도 2006년 5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올해 7월 현재 김군자할머니기금의 누적 모금액은 약 11억원에 달하고, 기금을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은 장학생은 약 2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김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관계 인사와 일반 시민의 조문이 이틀째 이어졌다.

나눔의 집은 25일 오전 8시 30분 장례식장에서 발인한 후 나눔의 집 역사관 앞에서 1시간여 동안 노제를 열 예정이다. 노제를 한 뒤 서울 양재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하고 유해는 나눔의 집 법당에 안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장현 광주시장 민생현장 찾아 폭염대책 점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윤장현 광주시장이 24일 민생현장을 찾아 폭염 대책을 점검했다. 〈사진〉

윤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윤 시장은 건설 현장에 마련된 폭염쉼터에 들러 관계자들과 근로자들을 만나 “한분 한분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시장은 (주)대성포장산업(대표 윤영심)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살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